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연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on College Adjustment Among Mature Nursing Students

Yeonhee Park*

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최근 평생학습 요구 증가와 간호직의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만학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30세 이상 간호 대학생 148명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3.69 ± 0.51 점, 전공 만족도는 4.07 ± 0.50 점, 대학생활 적응은 3.42 ± 0.50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년($\beta = .20, p < .001$)과 자기효능감($\beta = .43, p < .001$) 그리고 전공만족도($\beta = .37, p < .001$)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설명력은 54%였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만학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mature students who apply nursing departm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lifelong learning needs and the high employment rate of nursing job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on college adjustment among matur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1 and a total of 148 mature stud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was 3.69 ± 0.51 , satisfaction in major was 4.07 ± 0.50 and college adjustment was 3.42 ± 0.50 . As a result of analyzing factors, grade($\beta = .20, p < .001$), self-efficacy($\beta = .43, p < .001$) and satisfaction in major($\beta = .37, p < .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4%. Mature nursing stud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mature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college adjustment by provid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ncreas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ajor.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ature student,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College adjus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대학에 만학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만학도란 사회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지났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전형적인 성인학습자이다[1]. 그러나 대학마다 만학도 연령 기준이 상이하

여 만학도 전형을 만 23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상까지 대학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 기준을 '입학연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2].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

This stud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Dea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Park(yhpark@dst.ac.kr)

Received December 5,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December 12,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상으로 한 입시전형을 실시하여 성인학습자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였다[3]. 교육 당국에 따르면 2022년 2년제 이상 대학 336곳 가운데 수능 성적 대신 면접 평가를 위주로 '만학도'만 뽑는 특별 전형을 둔 학교가 134곳에 달했다[4]. 또한 취업의 불안정과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대학에서 50대 이상 만학도는 2017년 764명에서 2021년 2,608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4].

특히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만학도 학생의 입학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30대 이상 만학도의 수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95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2,95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70대 응시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5]. 최근 20년 동안의 간호사 국가시험 만학도 응시인원은 계속 증가 추세로, 이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만학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 대학에서 만학도는 소수자로서 일반학습자와의 관계형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 성인학습자의 모범적인 모습 등 특별한 역할 기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같은 내적 갈등 등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6]. 또한 암기력 저하와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과 혼자 떠도는 외톨이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나이로 인해 받는 편견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선행 연구[8]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간호학과 만학도에 대한 연구는 총 19편으로 이 중 질적 연구가 14편, 양적 연구가 5편이었다. 연구 대상은 편입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이었고,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 성인학습자가 2편이었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이 학업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만학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없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이해를 위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하고,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D광역시와 경북 A시, 충남 D시의 30세 이상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3.1.9.2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7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155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30세 이상이 아닌 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1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Hong[10]이 수정·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개의 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3개의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역문항으로 점수는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Hong에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11]가 수정·변안하고 Lee[12]가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18개의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간호학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Jeong과 Park[13]이 개발한 대학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개 문항으로, 대인 관계, 학업 활동, 진로 준비, 개인 심리, 사회체험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2

월까지로, D광역시와 경북 A시, 충남 D시에 위치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30세 이상인 만학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조사 도중 중단할 권리, 익명성이 보장됨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직접 링크를 통해 동의서 작성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30대가 48.0%, 40대가 31.1%, 50대가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2학년이 49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1학년은 12.2%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종교는 기타 혹은 무교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와 진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33.8%, 취업을 위해서가 33.1%를 차지했다. 그리고 등록금 조달 방법으로는 학자금 대출이 36.5%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 적응 요인으로는 가족의 지지(38.5%)와 만학도 간의 지

지(30.4%)가 가장 많았으며, 지도교수의 지지(4.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으로는 학업과 가사, 육아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부적응 요인이 없음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8)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Age(year)		40.6±8.39
	30~39	71(48.0)
	40~49	46(31.1)
	50~59	31(20.9)
Grade	1st	18(12.2)
	2nd	49(33.1)
	3rd	39(26.4)
	4th	42(28.4)
Religion	Christianity	41(27.7)
	Catholicism	24(16.2)
	Buddhism	17(11.5)
	No religion & ect.	66(44.6)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spiration for learning	22(14.9)
	Suit my aptitude	50(33.8)
	Employment	49(33.1)
	Attain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	2(1.4)
How to raise tuition	Ect.	4(2.7)
	Earned income	21(14.2)
	Existing assets	10(6.8)
	Spouse support	12(8.1)
	Parent support	28(18.9)
	Scholarship recipients	54(36.5)
Factor of adjustment on college life	Student Loan	23(15.5)
	Family support	57(38.5)
	Support of younger classmate	23(15.5)
	Support among mature students	45(30.4)
	Support of academic advisors	6(4.1)
Factor of maladjustment on college life	Ect.	17(11.5)
	Performance of various roles	51(34.5)
	Lack of basic education	19(12.8)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23(15.5)
	Lack of basic physical strength	22(14.9)
	Economic problem	16(10.8)
Lack of understanding of major classes		15(10.1)
	Non	2(1.4)

3.2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3.69±0.51점 이었으며, 하부 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75±0.54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51±0.67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4.07±0.50점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4.46±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 만족도'가 3.55±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활 적응은 3.42±0.50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개인 심리'가 4.22±0.5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내외에서 여러 단체 및 조직에 참가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을 하는 '사회 체험'이 2.66±0.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mature nursing students (N=148)

Variables	Range	M±SD
Self-efficacy	1 ~ 5	3.69±0.51
General self-efficacy	1 ~ 5	3.75±0.54
Social self-efficacy	1 ~ 5	3.51±0.67
Satisfaction in major	1 ~ 5	4.07±0.50
General satisfaction	1 ~ 5	4.14±0.57
Recognition satisfaction	1 ~ 5	4.46±0.56
Course satisfaction	1 ~ 5	3.67±0.78
Relation satisfaction	1 ~ 5	3.55±0.85
College adjustment	1 ~ 5	3.42±0.50
Academic activities	1 ~ 5	4.04±0.54
Career preparation	1 ~ 5	3.13±0.76
Personal psychology	1 ~ 5	4.22±0.59
Interpersonal relations	1 ~ 5	2.87±0.83
Social participation	1 ~ 5	2.66±0.9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연령대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F=4.97, p=.008), 30대 보다 40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F=4.12, p=.008), 2학년에 비해 4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입학 동기, 등록금 조달 방법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었으며(F=2.53, p=.023),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다양한 역할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에서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51, p<.001), 대학생활 적응(r=.63, p<.0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Table 3. Difference i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8)

Variable	Categories	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College adjustment	
			M±SD	F(p) Scheffe	M±SD	F(p) Scheffe	M±SD	F(p) Scheffe
Age(year)	30~39	71	3.56±0.55	4.97 (.008) a(b)	4.00±0.52	1.73 (.180)	3.33±0.53	2.82 (.063)
	40~49	46	3.84±0.46		4.18±0.44		3.55±0.45	
	50~59	31	3.77±0.45		4.06±0.50		3.44±0.44	
Grade	1st ^a	18	3.60±0.43	0.40 (.752)	3.95±0.43	0.56 (.641)	3.30±0.37	4.12 (.008) b(d)
	2nd ^b	49	3.73±0.56		4.05±0.44		3.32±0.48	
	3rd ^c	39	3.65±0.47		4.09±0.50		3.37±0.46	
	4th ^d	42	3.71±0.54		4.12±0.58		3.64±0.54	
Religion	Christianity	41	3.77±0.51	0.66 (.579)	4.24±0.38	2.33 (.077)	3.53±0.49	1.14 (.335)
	Catholicism	24	3.71±0.54		3.98±0.56		3.46±0.49	
	Buddhism	17	3.58±0.45		4.05±0.43		3.37±0.41	
	No religion & ect.	66	3.66±0.53		4.00±0.54		3.35±0.51	
How to raise tuition	Earned income	21	3.75±0.50	.44 (.818)	3.97±0.44	0.66 (.652)	3.33±0.49	.61 (.695)
	Existing assets	10	3.57±0.41		4.08±0.35		3.33±0.35	
	Spouse support	12	3.71±0.48		4.24±0.44		3.57±0.44	
	Parent support	28	3.59±0.51		4.11±0.59		3.51±0.54	
	Scholarship recipients	54	3.72±0.57		4.09±0.53		3.39±0.52	
	Student Loan	23	3.72±0.47		3.98±0.42		3.43±0.47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spiration for learning	22	3.83±0.58	1.51 (.190)	4.15±0.48	1.18 (.322)	3.45±0.42	1.03 (.404)
	Suit my aptitude	50	3.75±0.41		4.15±0.49		3.47±0.43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around	21	3.66±0.60		3.90±0.45		3.36±0.52	
	Employment	49	3.56±0.53		4.04±0.52		3.37±0.55	
	Attain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	2	3.57±0.80		3.72±0.55		2.97±0.41	
	Ect.	4	4.01±0.30		3.93±0.43		3.79±0.75	
Factor of adjustment on college life	Family support	57	3.76±0.53	0.86 (.493)	4.14±0.45	0.70 (.594)	3.44±0.50	0.64 (.636)
	Support of younger classmate	23	3.75±0.54		4.10±0.55		3.52±0.63	
	Support among mature students	45	3.63±0.47		4.01±0.49		3.41±0.41	
	Support of academic advisors	6	3.50±0.30		3.93±0.45		3.30±0.33	
	Ect.	17	3.59±0.62		3.99±0.62		3.29±0.54	
Factor of maladjustment on college life	Performance of various roles ^a	48	3.76±0.47	0.58 (.747)	4.16±0.47	1.98 (.072)	3.59±0.52	2.53 (.023) a(e)
	Lack of basic education ^b	19	3.83±0.54		4.25±0.52		3.46±0.38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c	23	3.62±0.40		4.06±0.52		3.36±0.48	
	Lack of basic physical strength ^d	22	3.65±0.68		3.91±0.45		3.43±0.45	
	Economic problem ^e	16	3.63±0.45		3.82±0.40		3.10±0.44	
	Lack of understanding of major classes ^f	15	3.64±0.48		4.04±0.57		3.30±0.53	
	Non ^g	2	3.89±0.58		4.39±0.39		3.47±0.07	
	Missing value	3						

적응($r=.61, p<.001$)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 변수 모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N=148)

Variables	a)	b)	c)
Self-efficacy	1		
Satisfaction in major	.51 ($<.001$)	1	
College adjustment	.63 ($<.001$)	.61 ($<.001$)	1

3.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년 그리고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0.1이상, 분산 팽창 지수(VIF) 값이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의 수치는 1.95로 잔차는 독립적이었다.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beta=.20, p=.001$)과 자기효능감($\beta=.43, p<.001$) 그리고 전공만족도($\beta=.3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이 있었다. 설명력은 54%이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beta=.43,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college adjustment

	B	SE	β	t	p
(constant)	.13				
Grade	.10	.03	.20	3.51	.001
Self-efficacy	.42	.06	.43	6.65	<.001
Satisfaction in major	.37	.07	.37	5.64	<.001

$R^2=.55, Adj. R^2=.54, F=57.49, p<.001$

4. 논의

만학도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열망과 전문능력개발의 필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업 수행뿐 아니라 대학문화 향유와 인간관계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인, 인간관계 요인, 학습관련 요인, 기관-제도적인 요인이 대학생활 경험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1].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관련 요인 중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을 포함하여,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학년,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각 각의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기준 평균 3.69점으로, 하위 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75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0대보다 40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67, p=.008$).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Kim 등[14]의 연구에서는 3.07점,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도구는 다르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Kang과 Ko[16]의 연구에서는 3.28점, Park[17] 등의 연구에서는 3.33점, Lee와 Jeong[18]의 연구에서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학도 학생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4.0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로 전공만족도를 측정된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 3.83점, Kang과 Ko[16]의 연구에서 3.96점, Park 등[17]의 연구에서는 3.7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의 만학도 학생의 전공만족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학도 학생은 다른 학문이나 진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학과의 입학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기준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4]의 연구에서는 3.32점, 도구는 다르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는 3.52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Jeon 등[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평균 3.3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하위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 적응이 4.22점, '학업 활동'이 4.0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 체험' 2.6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Jeon 등[19]의 연구에서는 '대학 환경 적응'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 적응'이 3.0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0.6세, Jeon 등[19]의 연구에서는 27.7세로 연구 대상자의 연령적 차이와 사용된 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중 취약한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년이 증가하면서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학년보다 4학년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입생의 학년과 대학생활 적응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Cho와 Chung[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Cho와 Chung[20]의 연구에서는 만학도가 아닌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연령이 23.2세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Jeon 등[19]의 연구에

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지원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Jeon 등 [19]의 연구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군이 취업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응답한 대상자 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중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0.8%였는데,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과 연구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학생활 부적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다른 항목으로 응답한 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다.

넷째, 연구 변수들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3.51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관계 만족(3.67점)'이 '일반적 만족', '인식 만족', '과정 만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에서도 '대인 관계(2.87점)', '사회 체험(2.66점)'이 '학업 활동', '진로 준비', '개인 심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보다 나이 어린 동기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만학도는 대학에 재입학하면서 일반 학우들과 관계형성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세대 차이와 행동의 차이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또한 나이 어린 동기들 속에서 소수의 만학도 학생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소외감과 외톨이 감정을 느끼고,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응답했으며[6, 7, 21-24], 대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과 차이를 두는 다른 관점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6]. 이러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만학도의 경험을 다른 질적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호작용의 결과로 더 성숙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였다[24]. 또한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이러한 관계 갈등 외에도 체력의 처하

암기력의 부족,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할 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학도 간의 지지를 통하여 서로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서서히 자신감을 찾고, 학문과정에서 인생을 배운다고도 하였다[25].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결과를 비교할 만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여 명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년,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Jeon 등[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원동기($\beta=.187, p=.009$)와 전공만족도($\beta=.191, p=.005$), 스트레스($\beta=-.379, p<.001$), 감성지능($\beta=.276,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1.6%였다. 또 다른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Chung[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외감($\beta=.356, p<.001$)과 대인스트레스($\beta=.322,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1%였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점차 증가하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년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종교, 등록금 조달 방법, 간호학과 지원동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생활 적응 요인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복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결혼 유

무, 직장 병행 유무, 건강상태 등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대 학생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비교 및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하위 요소인 대인 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조 그룹 형성 및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H. Lee & Y. S. Ahn. (2007).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3(3), 89-116.
- [2]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2). Announcement of the 「2025 Basic Guidelines for University Admission」. Retrieved from <http://www.kcue.or.kr/index.htm>
- [3]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21). Announcement of the main points of the 「2023 College admission implementation plan」. Retrieved from <https://www.kcce.or.kr/web/board/1485.do?mode=view&schBcode=&schCon=0&schStr=2023%ED%95%99%EB%85%84%EB%8F%84%20%EC%A0%84%EB%AC%B8%EB%8C%80%ED%95%99%20%EC%9E%85%ED%95%99%EC%A0%84%ED%98%95%20%EC%8B%9C%ED%96%89%EA%B3%84%ED%9A%8D&pageIndex=1&pageUnit=20&idx=53512>
- [4] J. I. Shin. (2022, July, 2). Screening of mature age, scholarship baptism...Local university "Having Generation A". *Chosun media*.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02/6FZVRXOWMNCVLF4VM4OMIQLB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5] Korean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2). Korean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_Examinee_Nurse.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0459/fileData.do>
- [6] Y. L. Paik & B. N. Song. (2015).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in college life. *Journal of Quality Research*, 16(2), 85-95. DOI : 10.22284/qr.2015.16.2.85
- [7] Y. M. Cho, E. J. Kim & S. H. Sok. (2019).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2), 671-683. DOI : 10.5392/JKCA.2019.19.02.671
- [8] D. H. Lim, Y. R. Cho. (2022). Research Trends in Korea on Mature Nursing Students - A Scoping Revi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_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2), 281-292. DOI : 10.22284/qr.2015.16.2.85
- [9]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10] H. Y. Hong. (1995).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2]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3]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14] J. K. Kim, W. J. Kim & S. J. Lee. (2020).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20-126. DOI : 10.5762/KAIS.2020.21.7.120
- [15] G. S. Jeong & E. J. Park. (2019).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7(4), 253-263. DOI : 10.15268/ksim.2019.7.4.253
- [16] K. S. Kang & Y. S. Ko. (2016).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1(2), 179-189. DOI : 10.15715/kjhcom.2016.11.2.179
- [17]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DOI : 10.21032/jhis.2018.43.1.35

- [18] K. I. Lee & G. S. Jeong. (2017).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5(3), 91-99.
DOI : 10.15268/ksim.2017.5.3.091
- [19] M. K. Jeon, I. J. Kim, Y. S. Kim & M. Y. Han. (2018).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Transfer Students. *Crisisonomy*, 14(7), 117-130.
DOI : 10.14251/crisisonomy.2018.14.7.117
- [20] H. K. Cho & S. K. Chung. (2015).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Stress, Alienation and College Adjustment: Focused on Transferred and Non-transferr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79-2793.
- [21] S. J. Son & H. J. Kim. (2017).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4), 501-520. DOI : 10.22251/jlcci.2017.17.24.501
- [22] H. Kim. (2018). Late-starting Wome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5), 143-154.
DOI : 10.22143/HSS21.9.5.11
- [23] K. S. Kim, N. J. Jo, E. M. Choi & H. S. Ha. (2013). Study on Matur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775-799.
DOI : 10.15703/kjc.14.2.201304.775
- [24] S. H. Kim & H. I. Chung. Adapt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Stared Their Studies Late. (2016).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21(1), 83-104.
- [25] M. H. Kim & E. H. Cho. (2022).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epartment Mature-age students Major Cours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3), 19-26.
DOI : 10.17703/JCCT.2022.8.4.19

박연희(Yeon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yhpark@dst.ac.kr